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워크숍

- 일 시 : 2022. 4. 27(수), 14:00 ~ 16: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워크숍 계획

◇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인구 감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손 부족현상은 대부분 외국인 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체류 외국인은 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결혼이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와 결혼이주는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지속 체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들의 한국 체류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

I

개최목적

- 국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한국에서 외국인 인력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외국인유입의 증가로 외국인의 안정적 삶의 지원을 위한 노력과 방안으로 지역별 외국인 지원정책 등에 대한 지역별 사례 검토
-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모색

II

세미나 개요

- 주 제 :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 일 시 : 2022. 04. 27(수). 13:3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주 최 : 충남연구원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4:00	3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유동훈 원장 (충남연구원)	○ 진행 : 윤향희 박사 (충남연구원)
14:05 ~ 15:10	55'	[발제] 발제1 : 손정진이사(인천 함박마을 (사)너머) 발제2 : 전득안센터장(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	
15:00 ~ 16:00	60'	[토론] 토론1 : 김학로센터장(동포체류지원) 토론2 : 우삼열위원장(충남인권위원회) 토론3 : 유요열대표(홍성이주민센터) 토론4 : 우복남선임연구위원(충남여성가족연구원) 토론5 : 류민팀장(노동권익센터) 토론6 : 김경화장학사(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다문화교육센터) 토론7 : 홍만표과장(충남도청 경제실 국제통상과) 토론8 : 김은숙팀장(충남도청 경제실 북방교류팀) 토론9 : 이미영팀장(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다문화정책팀)	
16:00 ~		[폐회]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입니다.

오늘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역별 사례를 모아서 발제를 해주시는 인천합박마을 사단법인 너머 손정진이사님, 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전득안 센터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으로 함께해 주시는 김학로 동포체류지원 센터장님, 우삼열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홍성 이주민센터 유용열대표님,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우복남박사님, 노동인권센터 류민팀장님, 충남도 교육청 김정화장학사님, 충남도의 경제실 국제통상과 홍만표과장님, 경제실 북방교류팀 김은숙팀장님,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다문화정책팀 이미영팀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월 기준 1,956,781명이며 충남 체류 외국인은 66,69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외국인 이주민들은 한국에서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동료로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 주민으로서 삶을 함께 영위하고 지역 경제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보는 오늘이 자리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충남연구원 윤향희 박사께서 마련해 주신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워크숍 자리를 통해 보다 나은 이주민의 삶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각계 전문가분들의 토론을 통해 충남지역에서 이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에도 이곳 공주 충남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04월 27일

충남연구원장 유 동 훈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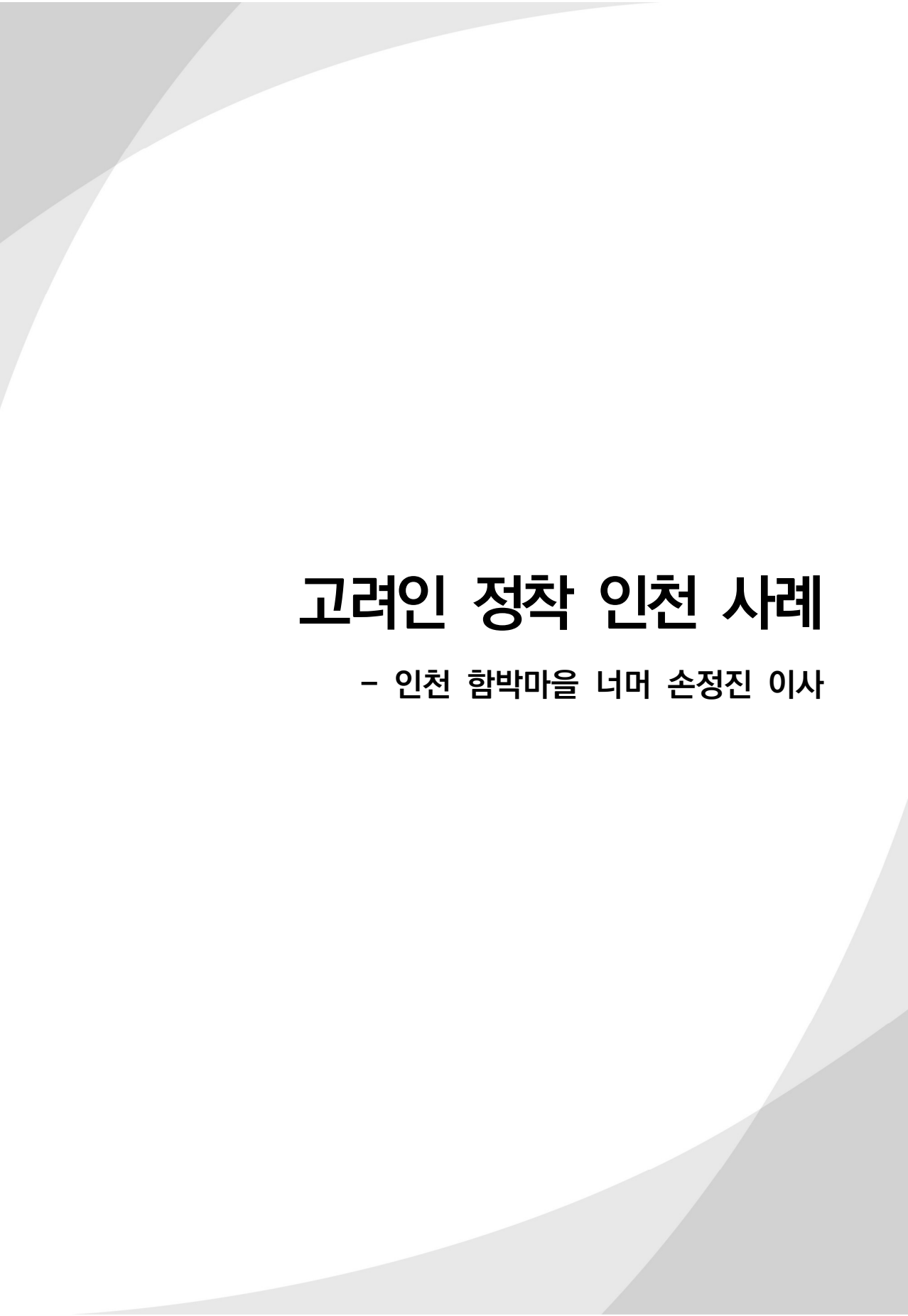


I. 고려인 정착 인천 사례 01

인천 함박마을 너머 손정진 이사

II.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활동 사례 47

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전득안 센터장



고려인 정착 인천 사례

- 인천 함박마을 너머 손정진 이사

고려인 정착 사례

- 인천 -

강사 소개

손정진 고려인지원 시민단체 활동가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공동대표
인천교육청 인천미래교육위원
고려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 이사

한겨레신문 차장/ 국회의원 보좌관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고려인

**Корейцы
Корё-сарам**

**고려인은 어떻게
모국귀환을
하게 되었나?**

고려인이란?

러시아에서는 주로 「고려사람, 까레이츠」 Корёсарам, Корейцы」, 한국에서는 ‘고려인’이라고 씀

‘꼬레아(Corea/ Corée)’는 서양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말.
고려(高麗)의 중국음인 ‘까우리’가 유럽에 전해진 것으로 짐작

13세기 중엽 몽골을 방문한 프랑스인 G.뤼브뤼키의 동방여행기에
‘카울레(Caule)’

원나라에 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카울리(Cauly)’라는
명칭이 사용

20세기 이후 코레아 Korea로 사용

고려인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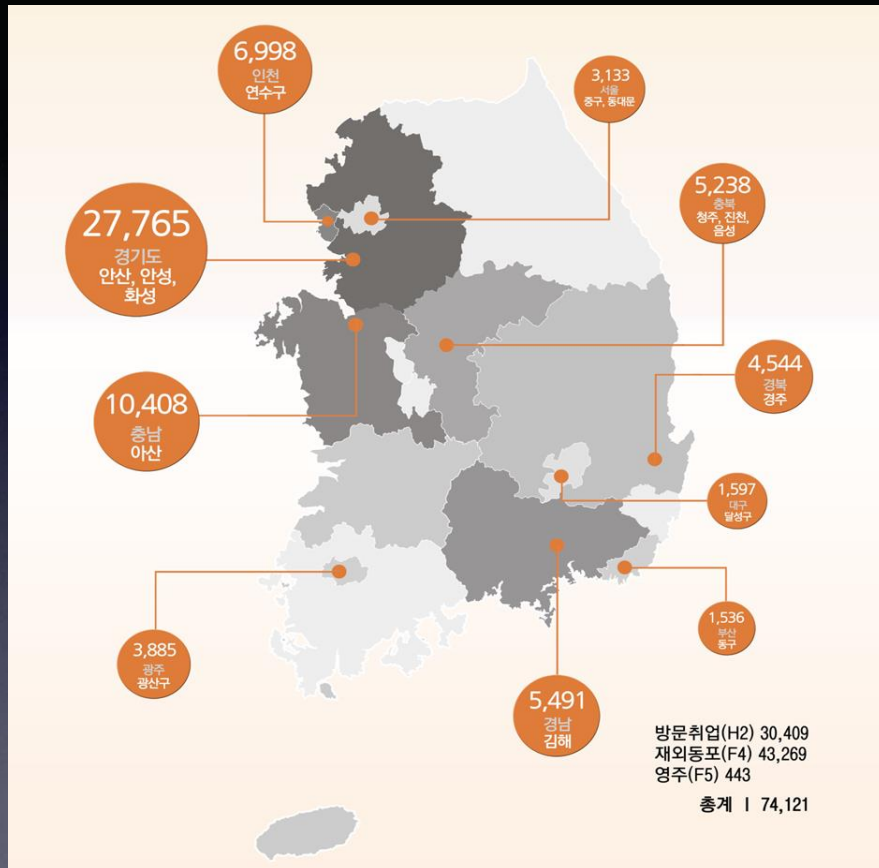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 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러시아 17만 명, 우즈베키스탄 18만 명, 카자흐스탄 10만 명,
우크라이나 2만 명, 기르기즈스탄 2만 명 등 약 50만 명(2018년 기준)

국내에는 약 10만 명(2021년 기준)이 ‘모국 귀환’

국내 고려인 집중 거주 지역(2019년 6월 기준)



러시아, CIS 고려인 거주 지역



소비에트연방 최고의 소수 민족, 고려인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 1956년부터 고려인 거주 제한이 해제되고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사라짐

많은 고려인이 모스크바 등 여러 도시로 진출하였고, 청년들 역시 러시아공화국의 유명 대학교로 앞 다투어 진학

1980년대에는 80%가 넘는 고려인이 도시에 거주
그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과 신분 상승의 열망이 자리 잡음

소비에트연방 최고의 소수 민족, 고려인

1960년대 이후 고려인의 교육 투자가 성과를 거둬 학자, 연구원, 교사, 의사, 건축가, 엔지니어, 법률가, 문화인, 공무원과 같은 전문 직종에 진출

1989년, 직업 가진 고려인의 55%가 교사, 의사, 기술자 등 전문직 종사자, 30%가 노동자, 12%가 농민, 3%가 학생

강제이주 이후 적성 민족으로 차별 받던 고려인은 이례적인 계층 상승과 위상 변화로 소련 연방 최고 소수민족으로 인정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족정체성 약화와 민족어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음

소련의 해체와 재이주

1991년 갑작스런 소련의 해체로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을 하고 자민족 중심주의로 급격한 재편

공용어가 토착민족어로 바뀌자 현지어 가능 고려인이 1%에 불과, 전문직과 관리직 종사 고려인은 대부분 물러나야만 함

고려인들은 피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차별의 땅’ 중앙아시아를 떠나야만 함

소련의 해체와 재이주

소비에트 경제 붕괴와 시장 경제체제 전환으로 고려인의 경제적 기반도 함께 무너짐

15개국 간 국경과 관세제도 신설 이후 고려인 부의 원천인 ‘고본질(원정 농업)’도 없어지고 각국 화폐개혁 과정에서 러시아 화폐로 쌓았던 자본 가치가 폭락하여 큰 손실

러시아가 1993년 ‘고려인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을 제정, 강제이주 불법성을 인정하고 연해주 재이주 권리와 국적 회복 권리를 부여하자, 17만 여명이 러시아로 이주

고국인 한국으로 귀환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1945년 이전 국외이주동포 (중국, 소련, 일본동포)는 제외되었다 2004년 개정으로 포함

2007년부터 중국과 CIS(구소련)지역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고려인의 입국 시작

2014년부터 가족동반입국이 급증하여 71.4%의 고려인이 가족과 함께 입국하였으며 대부분 한국 정착을 원함

2019년 재외동포법 재개정으로 4세 이후 자녀 동포 지위 인정

[고려인 Diaspora]

“근대 한민족 디아스포라에서
가장 오래도록 고난을 겪은 공동체”

- 연해주 이주, 1937년 강제 이주, 1991년 소련 붕괴 -

[Diaspora]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사는
공동체 집단 또는 그들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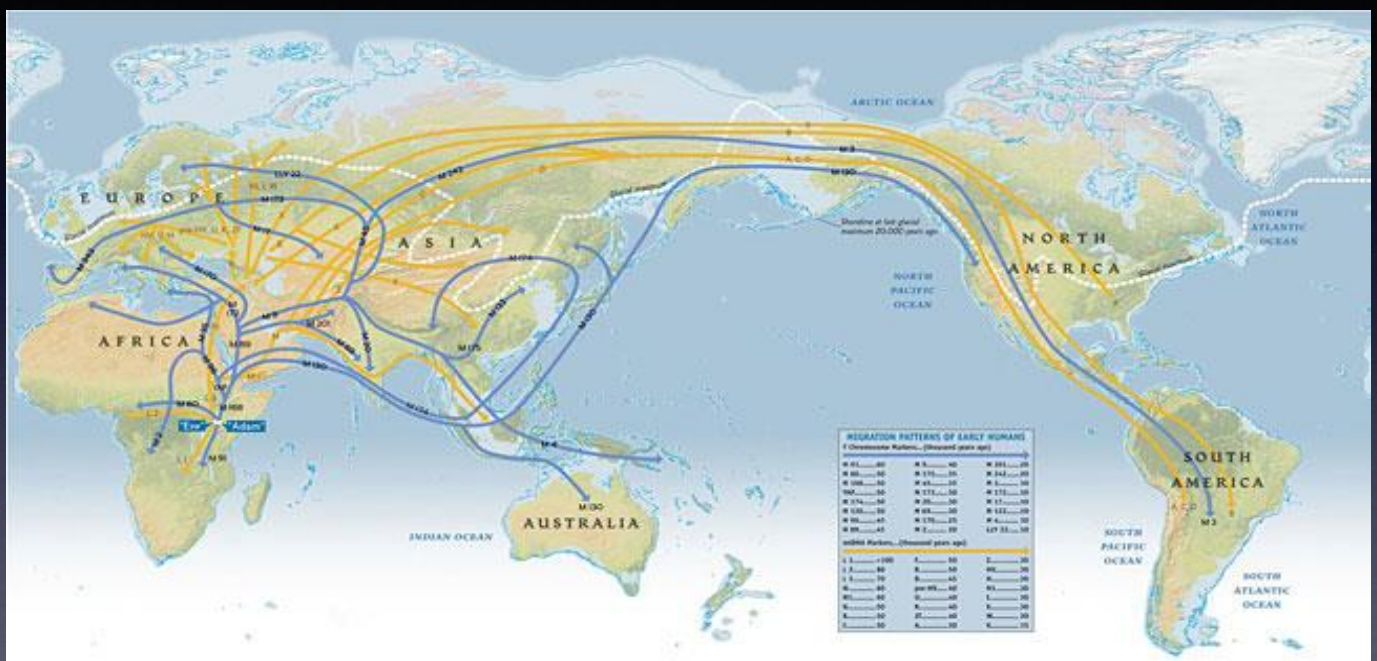
[Diaspora]

- 고대 그리스어에서 '~너머'를 뜻하는 '디아(dia)'와 '씨를 뿌리다'는 뜻의 스페로(spero)가 합성된 단어로 이산(離散) 또는 파종(播種)의 의미
-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
- 국외로 추방된 소수의 집단 공동체나 정치적 난민, 이민자, 소수 인종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

“인류는 모두 Diaspora”

[20~3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현생인류(Homo Sapiens)는
10~15만년 전 살던 곳을 떠나 전 세계로 이주]

DNA 분석으로 본 현생 인류 이동 경로



[한민족 Diaspora]

“전체 한민족 8천4백만 명 중 9%인 750만 명이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거주
인구 수 대비 유태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계 3위”

재외동포 현황(180개국 749만 명 2019년 기준)



[한민족 Diaspora - 삼국시대]

- 고구려 멸망 후 20만 명의 고구려 유민이 중국으로 끌려감
- 고구려 유민 출신 장군 이정기의 평로치청(산동반도 일대) 통치
- 백제 유민들이 운영한 중국 동해안의 집단 거주지 신라방
 - 백제 유민 출신 장보고의 산동반도 적산 등 지역에서 신라방 경영
- 발해 멸망 후 유민들이 중국 요동 지역, 만주 지역,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주

[한민족 Diaspora - 삼국시대]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 20만 명이 당나라로 끌려감



- 고구려 멸망 이듬해인 699년, 20만 명 유민이 중국으로 강제 이주
- 남방으로 이동한 10여 명이 현재 윈난성 묘족의 선조라는 학설이 있음

[한민족 Diaspora - 삼국시대]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평로치청, 제나라



- 765년 평로치청 절도사에 오른 후 당나라와 전쟁에서 승리
- 782년 아들 이납이 제나라로 칭하고 건국
- 819년 3만 명의 신라파견군과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패망

[한민족 Diaspora - 삼국시대] 백제 유민 장보고의 산동성 신라방 경영



- 백제 유민들이 운영한 중국 동해안의 집단 거주지 신라방
- 백제 유민 출신 장보고의 산동반도 적산 등 지역에서 신라방 경영
- 주요 근거지였던 적산에 신라 사찰 법화원 창건(1988년 복원)

[한민족 Diaspora - 근대]

- 1864년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으로 시작
- 연해주는 1937년까지 20만 명, 만주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45년까지 200만 명, 일본은 약 40만 명 정도의 강제징용을 포함 1945년 약 200만 명 이주
- 하와이(6천여 명), 멕시코(1천여 명)로 농업 이민
- 한국전쟁 이후 주로 미국으로 이민이 늘어남

[한민족 Diaspora - 근대]

근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작, 고려인



- 1864년 함경도 경원 출신 60여 명이 두만강 건너 지신허로 이주
- 연해주는 1910년 강제 병탄 이후 망명 이주 인구가 늘어남
- 1937년 20만 명에 이르렀으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함

[한민족 Diaspora - 근대]

가장 많은 이주민이 정착한 만주 지역



- 만주는 1900년대 이후 이주 시작하여 1910년 10만여 명 거주
-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가 한반도 남부에서 반강제로 집단 이주
- 1931년 67만 명으로 11배로 급증했고 1945년에 200만 명이 거주

[한민족 Diaspora - 근대]

경제적 이주와 강제 징용의 일본



- 대한제국 유학생을 시작하여 경상도, 제주 지역에서 돈을 벌러 이주
- 1938년 이후 강제 징용으로 약 40만 명이 끌려감
- 1945년 200만 명 정도가 거주

재외동포 모국귀환사의 새로운 모델 ‘인천고려인마을’

[인천에 정착한 고려인]

- 전체 9천 여명 중 연수구에 약 7천 여명 거주
- 함박마을은 전국 최대 고려인 마을(6천 여명)
- 남동공단 인근의 저렴한 주거비와 좋은 교육 여건

인천 고려인마을, 함박마을



인천 고려인마을, 함박마을



인천 고려인마을, 함박마을



인천여성재단 ‘인천 지역 고려인실태조사’(2019)

[인천 지역 고려인 실태 1]

- 1인당 월 평균 임금 2백만원
- 단순노무자 69%(정규직은 약 20%)
- 한 가구당 3.5명이 15.6평에 거주(싱글 약 35%)
- 60% 이상이 대졸자/ 약 90% 장기 정착 희망

[인천 지역 고려인 실태 2]

- 선주민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음
- 선주민 인식은 긍정 43%/ 보통 30%/ 부정 25%
- 긍정의 이유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 65.5%
- 부정의 이유는 '기존 주민과 갈등 및 환경 훼손' 68%

[함박마을의 새로운 기회, 도시재생]

- 2020년 함박마을 도시재생 승인
- '고려인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컨셉트
- 전체 주민의 50%를 차지하는 고려인 적극적 참여
- 선주민도 고려인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

[선주민도 고려인도 모두 주민]

-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주민’
- 선주민도 고려인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함께 협력
- 주민공동체인 ‘함박마을공동체’에 고려인 가입
- 고려인도 자체 커뮤니티 조직하며 마을 사업 참여

[함박마을 고려인 커뮤니티]

조 직	대 표	회 원 수	특 징
함박마을고려인 주민회	이빅토르		함박마을 고려인 대표 조직 공동체 대표들 모여 발족
인천엄마들	채예카찌리나	400여 명	젊은 엄마들 온라인 조직
함박마을고려인 상인회	최제냐	50여 명	상인자조 모임
인천고려인청년회	최야나	100여 명	대학생 등 청년 모임
인천장애인 가족모임	최마리아	20여 명	장애인 및 가족 모임
함박마을할머니 봉사단	마안나	15 명	할머니 커뮤니티

[함박마을 고려인 커뮤니티]

조 직	대 표	회원 수	특 징
대한고려인협회 인천지부	이드미트리		인천 거주 고려인 대표조직 대한고려인 협회의 인천 지부
함박마을 고려인 순찰대	텐갈리나	10여 명	마을 방범 순찰 봉사
함박마을고려인 청소년봉사단	돈아나톨리	30여 명	마을 환경지킴이 활동 2018.7 결성
시니어댄스동아리 소녀시대	리블라디미르	20여 명	고려인 시니어 문화 활동
청소년댄스동아리 SBS	오바체슬라브	20 명	고려인 청소년 문화 동아리
이스토리아	김나자	15 명	고려인 역사 스터디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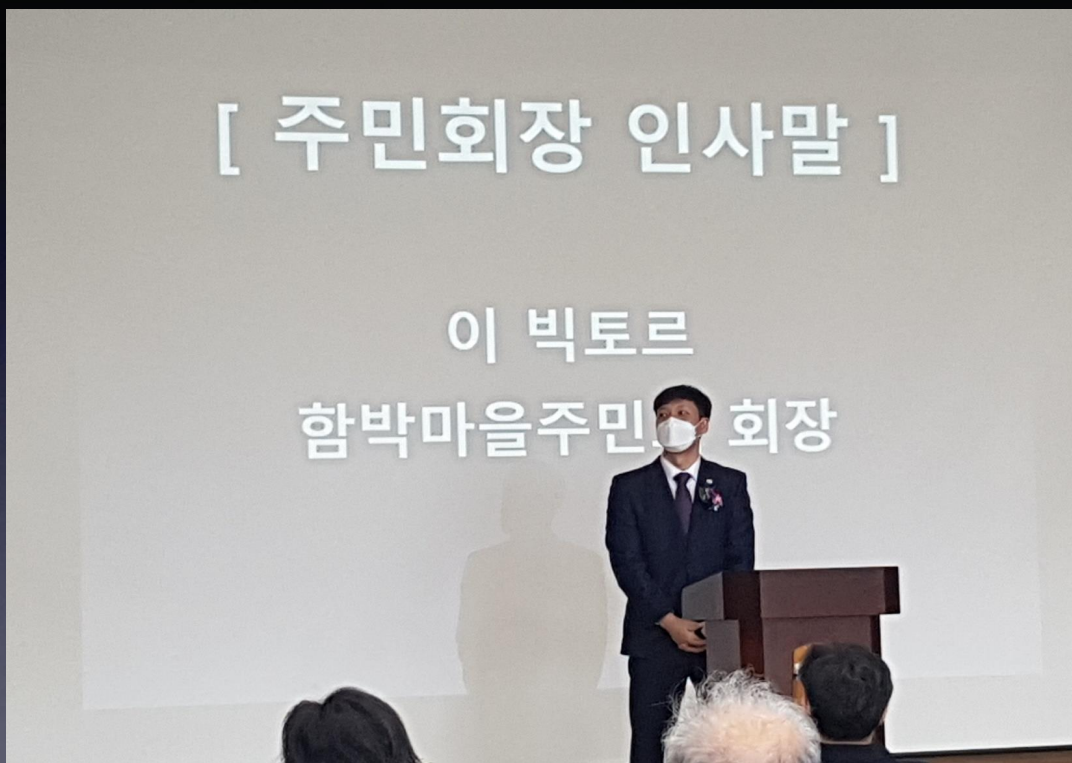
함박마을고려인주민회



함박마을고려인주민회



함박마을고려인주민회



함박마을고려인주민회



함박마을고려인주민회



인천엄마들



인천엄마들



인천엄마들



인천엄마들



인천엄마들



함박마을고려인상인회



함박마을고려인상인회



인천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인천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인천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현재 진행되는 사업]

- 도시재생 등 마을 사업 전반에 고려인 참여
- 선주민 공동체와 정기적 협의로 소통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추진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속 가능성 확보 노력

[교육 사업 현황]

- 성인 한글 교실, 초등 방과 후 수업 진행
- 한국어, 러시아어, 수학 등 진행
- 중고등 청소년의 프로그램 운영은 활발하지 못함
- 공모 프로그램 사업으로 예산 지원 받아 진행

[인천시 이주민 지원 정책 - 고려인]

- 인천광역시고려인주민지원조례 제정(2018.11.05)
- 다문화가족과 포괄 행정 외 별도 정책, 예산 없음
- 시민단체 사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간접 지원
- 보육,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지원도 거의 없음



**고려인
청소년
교육 현황**

[인천 이주민 교육 현황]

인천 교육의 기본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

[인천 이주민 교육 현황]

- 민주 시민 양성 교육 속에 하위 부문으로 편재
- 고유의 이주민 교육 원칙이나 정책 부재
-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에서 시작
- ‘이중언어강사’ 등 도입했으나 교육적 효과 적음

[민주시민교육 1]

교육의 목적: 민주시민 양성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교육기본법 제2조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주주의는 민주 시민에 의해 작동된다.
- 민주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 2]

민주시민의 자질: 민주시민성 6대 지표



*출처: 장의선 외(2020). 학교 수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민주시민교육 3]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개념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교육부 종합계획, 2018)

학생들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

(정원규 외, 2019)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율적 주체인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책임을 다하고, 갈등과 대립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며,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되 인간의 존엄성과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의견을 보호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삶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기능이 종합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뜻한다.

(장의선 외, 2020)

[민주시민교육 4]

학교 민주시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반영 방안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급 자치, 학교 자치
- 학교 밖 공동체와의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업 체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영역의 민주시민교육 시행
- 범교과 학습주제의 재구조화
 -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젠더교육 등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민주시민교육 하위영역으로 재구조화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강화
 -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 행사

[인천 민주시민교육 방향]

- 학생 주도성에 기반한 ‘헌법교육’ 강화
- 민주시민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 강화
- 지속가능 미래교육으로 ‘생태시민교육’ 강화

[인천 민주시민교육 원칙 1]

- 헌법적 가치 존중의 원칙
- 학습자 주도의 원칙
- 논쟁성 재현의 원칙
- 교화 및 일방적 주입 금지의 원칙

[인천 민주시민교육 원칙 2]

➤ 헌법적 가치 존중의 원칙

(인류 보편적 가치 지향)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UN)인권협약에 기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향

“인류 보편적 가치 구현으로서
소수자인 이주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인천에서 잘 보장받고 있나?”

[고려인의 어두운 교육 현실]

- 언어 문제로 학업 성취도 낮아 학교 적응 어려움
- 학업 포기 청소년도 늘어남
- 유료 러시아 학제 학원 성행
- 입시 정보 부족으로 진로/ 진학 지도 어려움

[근본 원인은 ‘언어’]

- 1938년 이후 한글교육 금지로 모국어 뺏김
- 언어 장애로 학습 결손과 교우 관계 문제
- 한국의 교육 환경은 ‘강제적’ 언어 습득
- 이중언어강사 등 현 지원체제는 효과 없음

[대안교육으로 해법 찾기]

- 이중언어/ 이중문화 배경 교육법 도입 주창
- 대한고려인협회에서 이중언어 대안학교 추진
- ‘인가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준비
- 한국-러시아 양국 대학 진학 루트 선택 가능

[공교육에서 새 가능성 찾기]

-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 있음
- 주로 1~2년간 위탁 형태로 한국어 집중 교육
- 이중언어 강사, 기숙사 등 훌륭한 인프라 구비
- 장기형 ‘CLIL’ 교육법 기반 대안 학교 제안 중

[CLIL 교육법이란?]

- CLIL(Content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 학업성취도에 맞춰 모국어와 목표어 모두 활용
- 2008년 EU 집행위에서 다언어 교육법 채택, 지원
- 캐나다, 미국 등 이민자 국가에 핵심 교육법으로 채택

[교육자치기구 위원으로 참여]

- 인천교육청 교육자치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인천미래교육위원회' 위원 공모에 참여
- 협회 교육위원장, 인천문화원 대표 등 2인 선임
- 다문화, 장애인 교육 차별과 마을/시민교육 분야 활동

[교육청 정책으로 채택 노력]

- 인천교육청 다문화 교육 차별 해소 정책 수립 요구
- 인구 절벽에 따른 이주민 급증 시대의 요구
- 관문/ 이주/ 다양성의 도시, 인천의 자치교육 제안
- 공립 대안학교,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제안함

[이중언어 교육 시범 사업 시작]

- 인천교육청, 연수구청과 함께 시범사업 협약 체결
- 교육청 마을교육사업단 운영 교육문화 공간 활용
- 4층 규모로 강당, 예체능실, 공유부엌, 교실 완비
- 공동으로 프로그램 기획, 시설 운영하고 예산 등 지원

[전국 최초 이중언어 교육 모델]

- 초등 대상 이중언어 주말학교부터 시작
- 귀환 전 교원자격증, 전문 학위 소지 교사 참여
- 전임 교사 급여 등 일부 비용은 수업료로 충당
- 하반기에 초등 전일제(4시간) 프로그램으로 확대

이중언어 시범교육 협약식



복합교육공간 마을N



복합교육공간 마을N



복합교육공간 마을N



[다른 지역 확산 노력]

- 인천모델의 성과가 나오면 다른 지역 채택 노력
- 충북교육청은 고려인 청소년 특별학교 모색
- 일자리-주거-교육 연계형 농촌 정착 프로그램 제안
- 'CLIL' 교육법 포럼을 만들어 공교육 도입 노력

[앞으로 사업 방향]

- 4년 간 진행될 도시재생에서 고려인 권익 확대
- 고려인 커뮤니티 성장을 통해 리더십 강화
- 고려인 장애인, 보육료 지원 등 복지 권리 확보
- 이중문화/언어 배경 이주민 대안 학교 설립 추진

[인천 모델의 시사점]

- 고려인 공동체 조직화로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
- 지역 과제 해결과 선주민 협력에 적극적 노력 필요
- 법적 제도적 개선 캠페인 등 권익 사업 노력 필요

고려인에 대한 기존의 시각?

외국에서 한국에 온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
러시아 지역에서 일하러 온 외국 노동자
의지할 데 없어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

고려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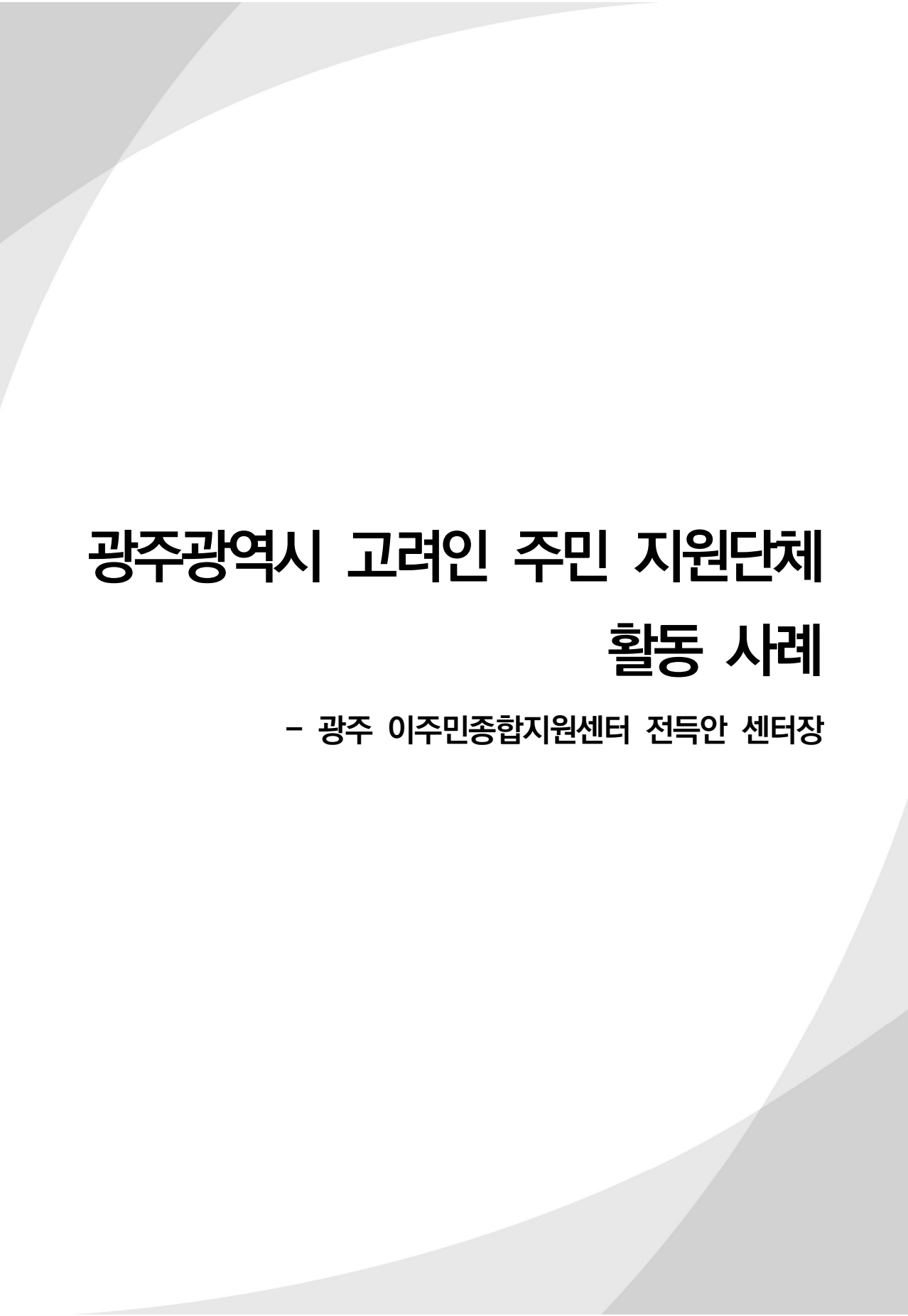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온 사람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고려인의 Vision]

-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이웃이자 동반자’
-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의 한민족 파이오니어’
- ‘고난에 굴하지 않는 민족성의 표상’

The End

Thank you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활동 사례

- 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전득안 센터장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활동 사례발표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워크숍]

전득안 센터장
이주민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대한민국체류 외국인 199만명

중국: 865,087명(43.5%)

베트남: 209,772명(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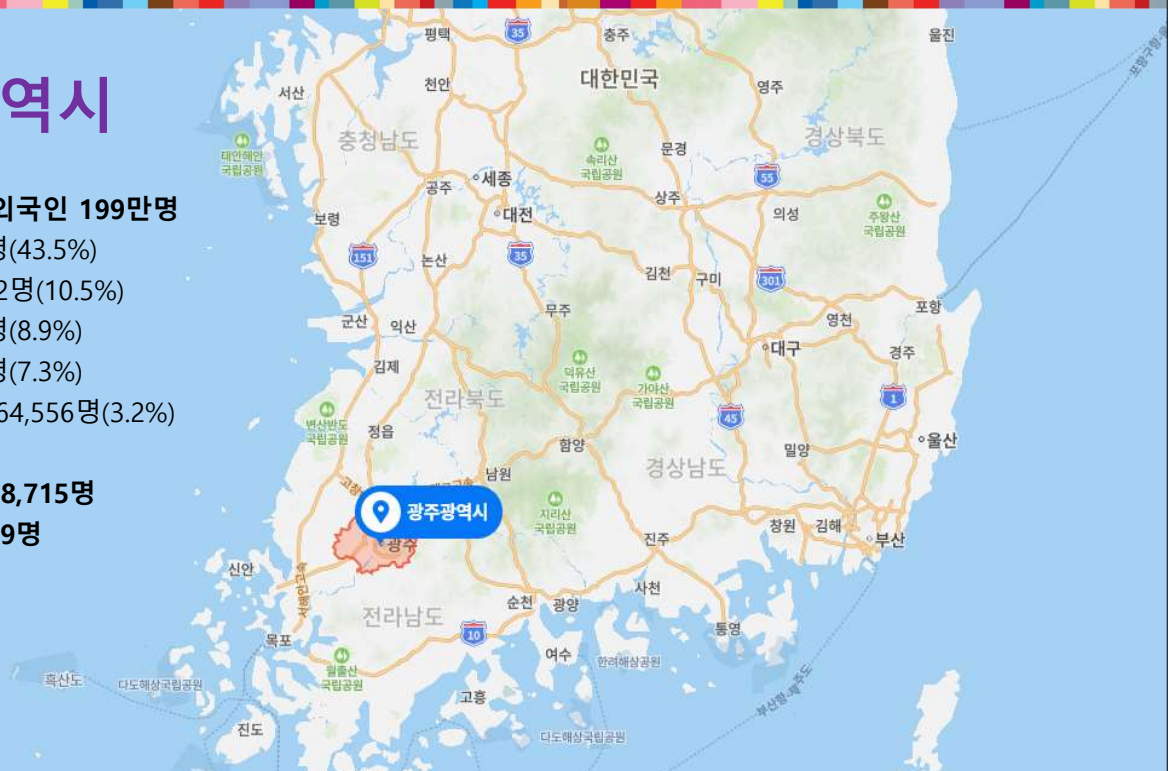
태국: 176,467명(8.9%)

미국: 146,465명(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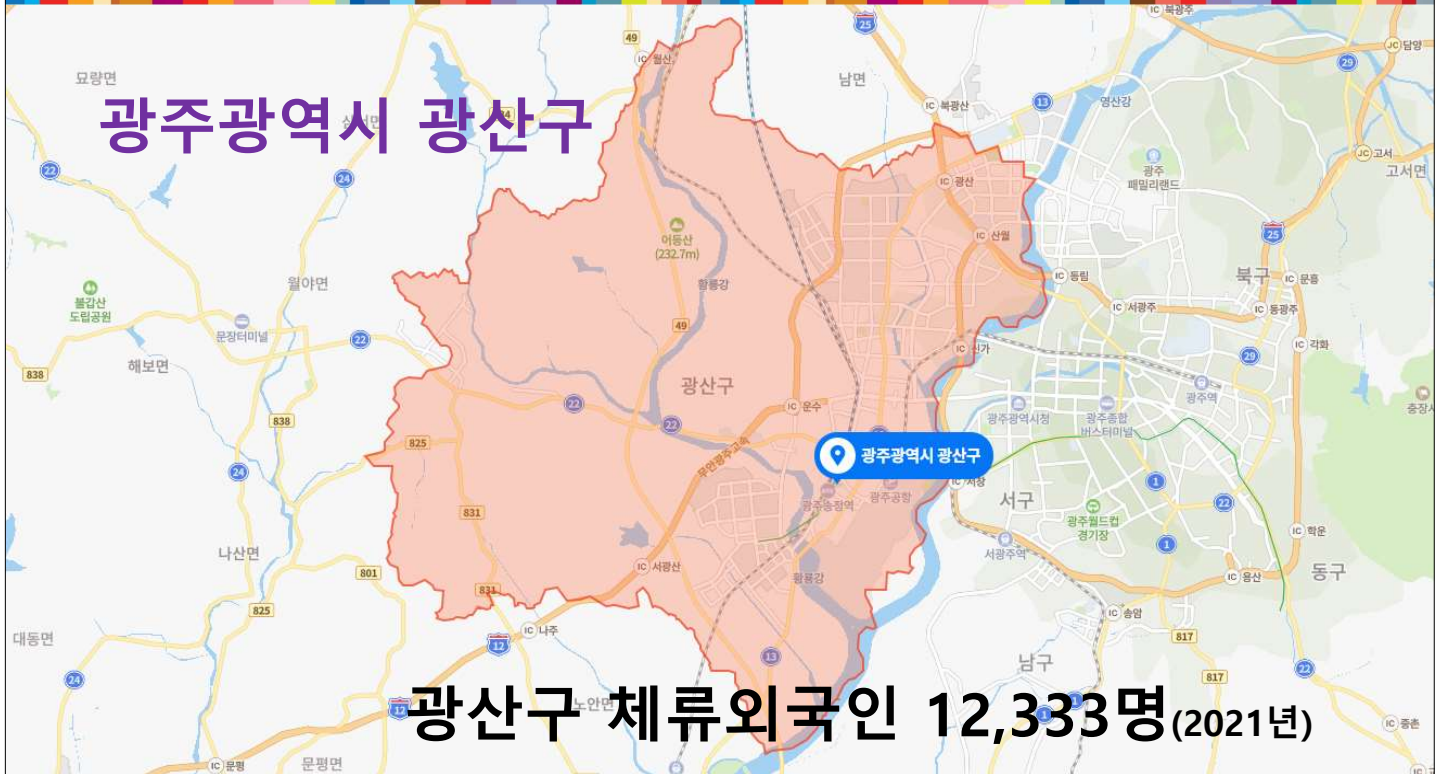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64,556명(3.2%)

결혼이민자: 168,715명

유학생: 157,66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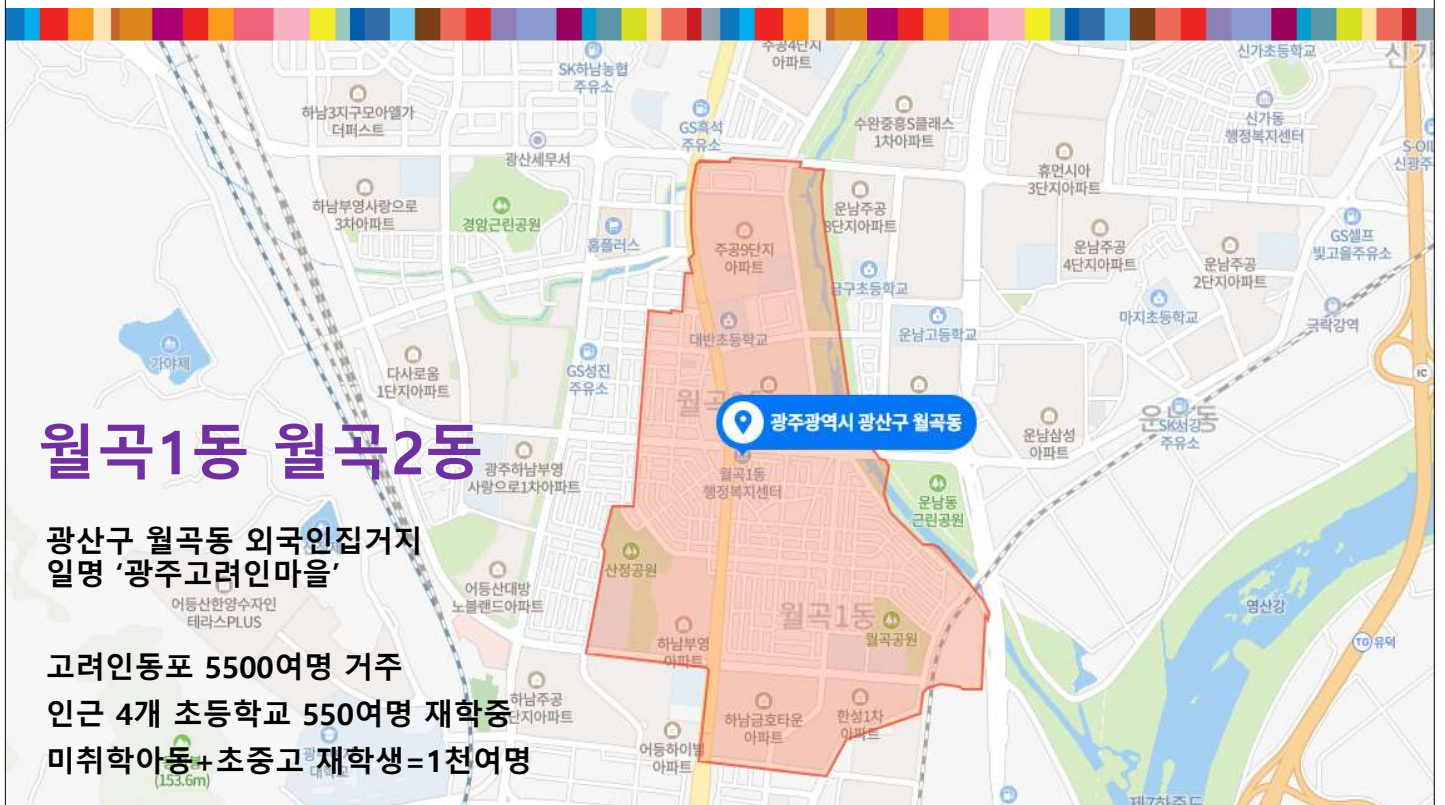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1동 월곡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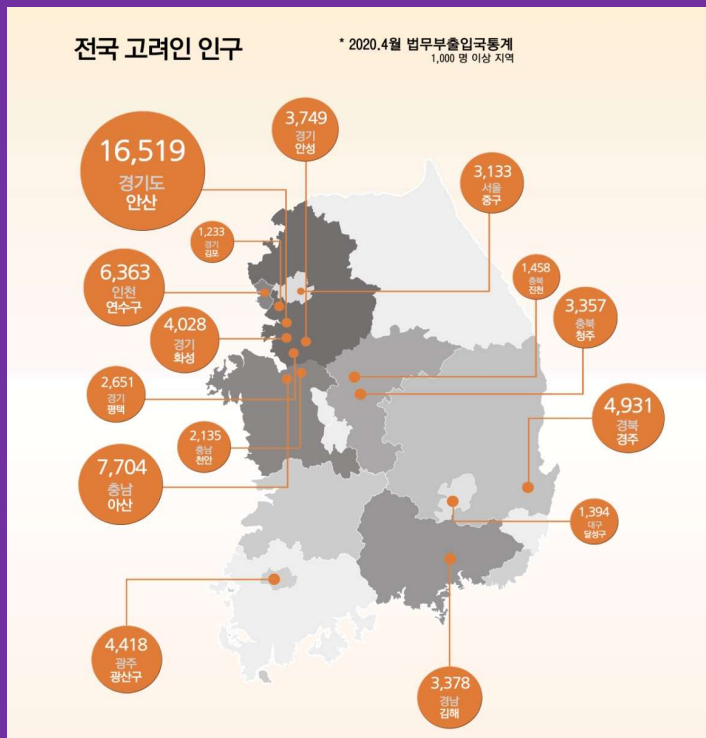
광산구 월곡동 외국인집거지
일명 '광주고려인마을'

고려인동포 5500여명 거주
인근 4개 초등학교 550여명 재학중
미취학아동+초중고 재학생=1천여명



전국 고려인 인구

* 2020.4월 법무부출입국통계
1,000 명 이상 지역



1. 광주고려인마을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 ▣ 1990년대 초반부터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동포 거주 시작
- ▣ 당시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봉사』를 하던 단체가 고려인 지원활동 시작
- ▣ 1990년대 중반 고려인지원단체가 구성됨
- ▣ 현재 '사)고려인마을'과 '이주민종합지원센터'가 고려인주민 지원단체로 활동 중

-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21,791명
- ▣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12,333명
- ▣ 월곡1동과 2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7,226명
- ▣ **[월곡1,2동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5,158명]**
(2021년 12월 현재)

1. 광주고려인마을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 월곡동 고려인마을의 공간적 특성 5가지(전남대 선봉규 박사)

- 1)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고려인동포 등장(식당, 카페, 상점 등)
- 2) 자생적 공동체 형성(교회, 센터 등)
- 3) 자녀 보육 및 교육 시설 형성(자생적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
- 4) 전국 최초 고려인지원조례 마련
- 5) 다문화 월곡2동주민회의 참여(선주민과의 공존 노력)

1. 광주광역시 고려인지원조례와 관련 정책

■ 광주광역시 전국 최초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 1) 2013년 10월 제정 [조례 4291호, 2013년 10월 1일 제정]
- 2) 2019년 7월 개정 [광주광역시 조례 5252호, 2019년 7월 1일, 일부개정]

1. 광주광역시 고려인지원조례와 관련 정책

■ 조례의 주요내용

-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한다
- 집중 거주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법적 지위,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기본생활 편의, 응급구호, 보건의료

2. 광주광역시 고려인지원조례와 관련 정책

■ 조례의 주요내용

- 문화 체육행사
- 자녀 돌봄
- 고려인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취업 및 창업지원
- 역사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 거주지역 환경 개선 사업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시와 구의 고려인주민 지원단체를 통한 사업들

■ 고려인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고려인 아동을 위한 "바람개비꿈터공립형지역아동센터"(정원 약35명)



3. 시와 구의 고려인주민 지원단체를 통한 사업들

■ 중도입국 고려인 중고등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새날학교"(현재 정원 약 75명,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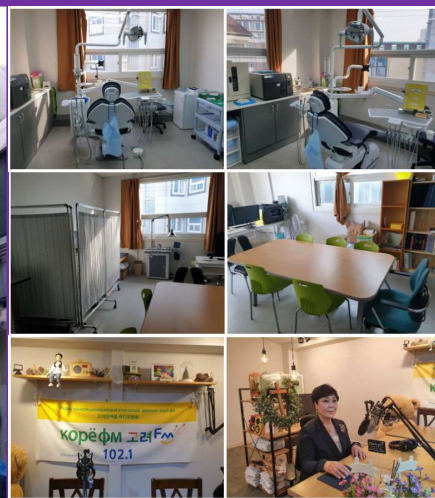
3. 시와 구의 고려인주민 지원단체를 통한 사업들

■ 고려인 문화관("결") 운영



4. 시와 구의 고려인주민 지원단체를 통한 사업들

■ 고려인 진료소, 미디어센터 운영



4. 시와 구의 고려인주민 지원단체를 통한 사업들

▣ 고려인의 날 행사, 3-1절 행사(만세운동)



고려인 이주민의 다양한 문제들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들



4.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 아동 청소년 교육 및 정착 지원사업(한국어,상담,음악,연극,여행)



가족 1박2일 힐링캠프



부모 간담회

4.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초등학생 한국어교실

초등학생 한문교실



4.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놀고쉬는 작은도서관



4.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 방과후 공부방 운영(매일운영: 저학년-20여명/고학년-40여명)



4. 고려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 고려인 부모 및 아동 면담



4.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 고려인 어린이신문 발간(1회당 8명 / 1년4회 발간)



4.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 성인반 한국어교실(초급,중급,토픽준비반 운영)



4.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 어린이날 월곡동 고려인마을 골목축제



4.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

▣ 이주민 무료진료소 운영 및 치과치료

일반진료: 일요일 오후-이용 인원 700여명 / 치과진료: 이용 인원 200여명





4. 고려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 자녀양육세미나, 부부학교

1년 5회 실시 : 회당 30여명 교육참여(1년 150여명 참여)



4. 고려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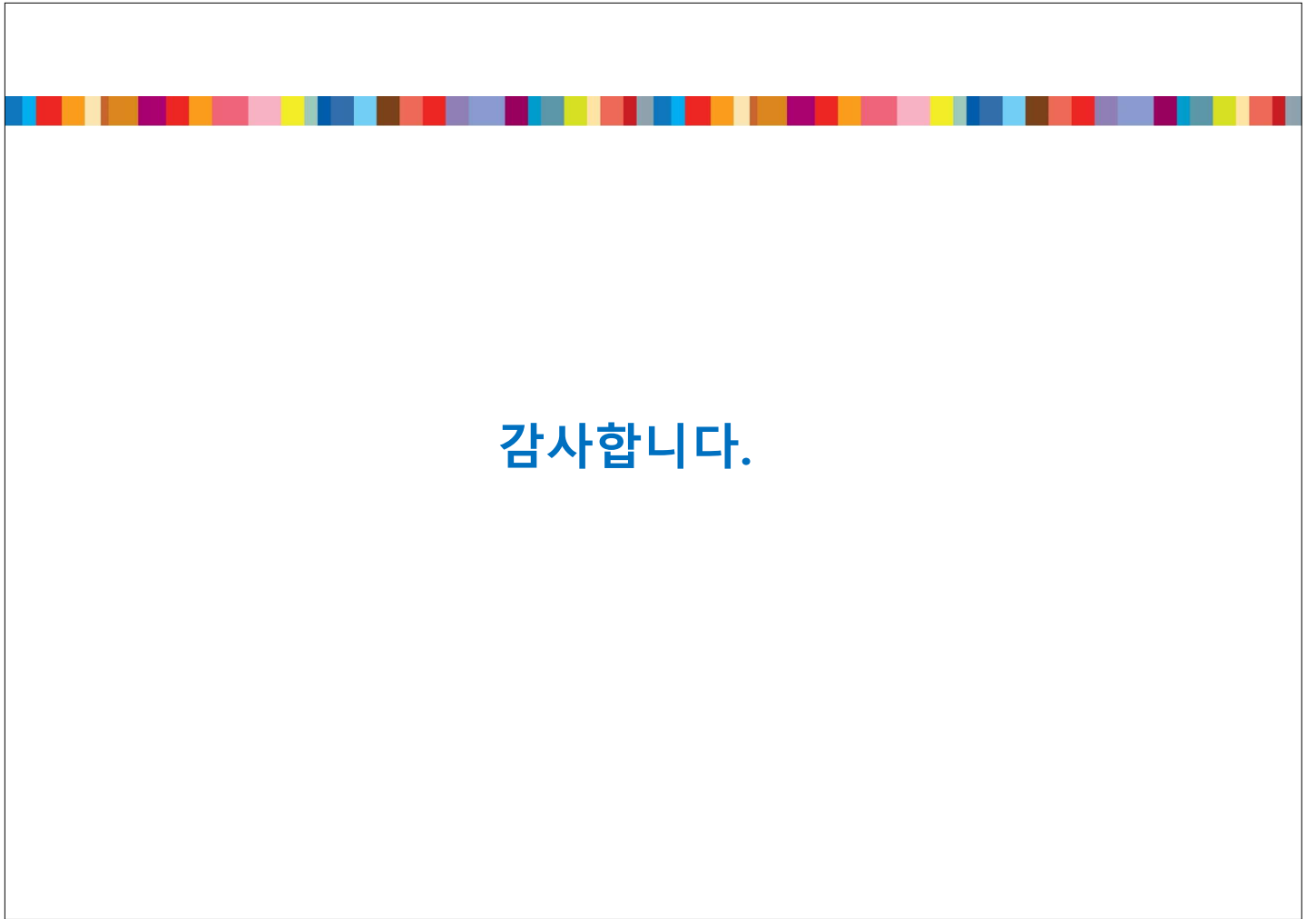
- ▣ 병원진료 동행 서비스, 출입국사무소 동행 서비스(통역)
1주 2건, 1년 100여건 서비스



4.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들

-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동포 피난민 구호활동
현재까지 한 달새 광주지역 우크라이나 고려인 150여명 유입
- ▣ 항공권지원-100여개, 주거 보증금지원, 월세지원, 생활물품지원





감사합니다.

[illegible]

Memo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